

計劃家, 計劃敎育과 프로페셔널리즘

—韓國的 現實과 展開方向—

崔 相 哲*

目 次

- I. 計劃家の 意味
- II. 計劃家와 計劃敎育
- III. 計劃家の 現場

I. 計劃家の 意味

우리나라에서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計劃家라는 稱號를 標榜하게 된 集團은 都市計劃家を 중심으로 한 物的計劃家(physical planner)들이었다. 英國의 王立都市計劃學會(Royal Town Planning Institute)가 1920年代에, 美國의 美國計劃家協會(American Planners Association)가 1930年代에 誕生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9年 大韓國土計劃學會라는 이름으로 發足되었다. 日本의 都市計劃學會가 우리보다 10年 以上을 앞서 第2次大戰後 發足되었다. 나라마다 事情이 틀리므로 發足 當時 내건 趣旨도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었다. 英國이 19世紀末 社會改革論者를 중심으로 한 中産階級的 「아이덴티티」의 實現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면, 美國은 中産層 以上の 特定集團의 不動産價値 保存과 上流階層의 象徴的 審美的 欲求를 充足시키는데 一翼을 담당한 것은 否認할 수 없을 것 같다. 英國의 E. Howard, P. Geddes와 美國의 D. Burnham이나 F. Olmsted와 같은 人物들로 代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日本의 경우 이상과 같은 階級性은 처음부터 두드러진 것 같지 않으며 功利主義的 技術集團으로서 出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理想的인 社會價値를 내세우고 出發하였다기 보다는 土木事業과 建築規制라는 技術的, 功利的, 目的으로 特徵지어졌다. 처음부터 다른나라 計劃家들이 내건 理想主義的(utopian), 幻想的(visionary), 改革的(reformative) 意志보다는 都市 및 地域計劃에 관심을 가진 實務者와 專門家들의 同好人的 性格과 土木 및 建築의 偏向에 대한 綜合計劃的 接近이라는 名目を 강하게 띄었다.⁽¹⁾ 따라서 計劃家라는 專門 職業意識보다 都市 및 地域計劃學 以外の 土木, 建築, 地理學 등 關聯 社會科學에 뿌리를 두고, 副業的·二重的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60年代 中盤以後 大學과 大學院課程에 都市計劃學을 專攻하는 學科가 開設되고 外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副敎授

(1) 拙稿, "1970年代 都市研究의 回顧와 反省," 「都市問題」; 第14卷 第12號(1979. 12) pp. 74~76.

國에서 공부한 教授陣들이 歸國함에 따라 都市 및 地域計劃을 業으로 하는 集團이 形成되었으며 計劃家라는 意識이 보다 具體化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大韓國土計劃學會 活動의 一環으로 全國都市計劃學科協議會가 結成되고 每年 親善會合을 갖게 되는 契機가 이룩되었다. 大學院課程으로서 唯一하였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 卒業生들이 韓國空間計劃硏究會(Korean Spatial Planners Association)를 發足하였으며 「空間計劃」이란 創刊號를 發刊한 바 있다.⁽²⁾

그러나 計劃家라는 意味는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두가지 類型으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學問的 計劃家(planner as academician)와 實務的 計劃家(planner as practitioner)가 그것이다. 前者는 計劃家라는 강한 意識을 지니고 있지만 計劃家를 養成함을 第1次的인 任務로 하면서 한정된 外部 특히 政府와의 關係에서 計劃家の 役割을 하며 大學附設 硏究機關에서 限定된 範圍나마 實務的 計劃에 參與하는 集團이다. 後者는 政府主導型 資格試驗에 合格하여 都市計劃技士 또는 技術士라는 名稱으로 用役 또는 硏究機關에 있으면서 이른바 開業을 하고 있는 計劃家の 集團이다. 이 두가지 類型의 計劃家は 반드시 뚜렷하게 區分되는 것은 아니다. 本質的 差異라기 보다는 從事하는 職場과 깊은 關係를 맺고 있으며 大韓國土計劃學會의 會員構成이 이를 代辯해 주고 있다. 大韓國土計劃學會의 경우 두가지 性格 즉 學問的 計劃家들의 學術活動을 위한 學會로서의 機能과 實務的 計劃家들의 職能 및 利益集團으로서의 協會的 機能을 同時에 지니고 있는 것도 注目할 만한 일이다. 사실 이 두가지 類型의 計劃家들이 追求하는 目標과 役割은 다를 수 있다.⁽³⁾ 計劃學學會와 計劃家協會와의 關係는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最近 都市計劃技術士들이 韓國技術士會를 大韓國土計劃學會와 別개로 結成한 것은 이상과 같은 脈絡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와 같은 짧은 都市 및 地域計劃의 歷史 속에서도 計劃家の 意味와 役割에 대한 時代的 變遷을 몇 段階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1950年代末로 부터 1960年代 中盤에 이르기까지 同好人的 모임으로부터, 그 以後 1970年代 中盤까지의 綜合計劃家로서의 計劃家 또는 一般的 計劃家(planner as generalist)의 段階를 거쳐, 1970年代 後半부터 專門家的 計劃家(planner as specialist)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活性化되는 時代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年代 後半에 오면서 都市設計, 地域開發 및 地域社會開發, 交通計劃, 環境管理, 造景 등의 分野에서 一般的 計劃家에 대한 專門家的 計劃家の 特殊性和 獨自性を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造景分野가 1976년에 韓國造景學會로 發足되었으며 都市設計分野가 1979年 都市設計세미나를 開催하여 우리나라 都市의 未來와 都市設計의 役割에 관한 合意點을 구할려고 한 바 있다.⁽⁴⁾ 1981년에 地域(社會)開發學科의 將來와 관련하여 세미나를 開催하

(2) 韓國空間計劃硏究會, 「空間計劃」, 創刊號(Vol. 1),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1.

(3) 抽稿, “都市行政과 技術用役,” 「都市問題」, 第9卷 第3號(1974.3), pp. 35~44.

(4)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都市設計세미나主題發表演文集: 韓國都市의 未來와 都市設計의 役割」, 1979年 12月 14日.

였으며 全國의 地域開發學科協議會를 構成하기에 이르렀다.⁽⁵⁾ 1982년에 드디어 都市計劃에서 중요한 領域을 차지하는 交通計劃이 分家하여 韓國交通學會로 發足되었다. 最近 全國의 地域開發學科關聯者들이 地域開發 내지 地域學會의 發足を 舉論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注目할만한 計劃分野의 展開라 할 수 있다. 나아가 環境問題와 관련하여 環境計劃, 環境設計, 環境管理 등의 이름으로 計劃家の 隊列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環境工學의 領域을 넘어서는 環境影響評價와 같은 研究는 都市 및 地域計劃家들의 積極的 參與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一連의 計劃家가 해야할 對象의 外延的 擴大와 專門化 傾向은 1980年代에 들어오면서 加速化되는 것 같고 앞으로의 趨勢 역시 그러한 方向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傳統的인 都市 및 地域計劃學의 「과라다임」(paradigm)에 一大轉換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職業人으로서 計劃家の 意味과 條件에 대한 再吟味가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趨勢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現象은 결코 아니다. 美國計劃家協會가 1960年代末부터 1970年代를 計劃의 激動期라고 스스로 부를만큼 커다란 哲學과 實務의 混迷를 겪었으며, 英國의 1970年代를 計劃理論과 과라다임의 破綻이라고 特徵지은 것을 想起할 수 있을 것 같다.⁽⁶⁾ 計劃家라는 「아이덴티티」 自體가 흔들리고 있으며, 計劃家로서 지켜야 할 倫理 역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轉換期가 來到한 것 같다.⁽⁷⁾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計劃學의 發展과 計劃家라는 職業의 定立을 위한 發展的 鎮痛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보다 높은 計劃家像을 위한 거쳐야 할 過程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I. 計劃家와 計劃教育

計劃家와 計劃家を 養成하는 教育은 分離시킬 수 없다. 計劃이 무엇이나에 대하여 計劃家가 하는 일이 計劃이라고 逆說의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計劃家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가 計劃家の 價値觀과 資格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計劃家を 體系的으로 養成하기 시작한 歷史는 日淺하다. 1964年 釜山の 東亞大學校에 都市計劃學科가 新設된 以來, 다음 <表-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全國의으로 8個의 大學에 都市計劃學科 및 都市工學科가 開設되었고 每年 539名의 學生을 받아들이고 있다. 地域開發關聯學科도 1975년에 檀國大學校에 地域開發學科가 開設된 以來, 全國의으로 9個大學에 地域開發學科 또는 地域社會開發學科가 設置된 바 있다(<表-2> 참조). 造景學科도 마찬가지로 지난 10年 동안에 11個의 大

(5)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地域(社會)開發學科의 教科課程改善을 위한 세미나主題發表論文集」, 1981年 7月 3日.

(6) David R. Godschalk, ed., *Planning in America: Learning from Turbulence*, An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Publication, 1974.

(7) 國土開發研究院, 「都市計劃심포지움 I : 轉換期에 선 都市計劃—지난 20年의 梭改와 다가올 20年의 展開」, 1981年 12月 18日.

〈表-1〉都市計劃・都市工學系列學科一覽

學 科	大 學	募 集 定 員	教 授 數
都市計劃學科	東亞大	65	5
	弘益大	39	5
	暎園大	52	—
都市計劃工學科	圓光大	52	3
都市工學科	서울大	39	6
	漢陽大	70	5
	啓明大	75	2
	嶺南大	147	2
計	8 個大	539	28

〈表-2〉地域(社會)開發學科一覽

學 科	大 學	募 集 定 員	教 授 數
地域開發學科	清州大	52	4
	木浦大	52	5
	韓南大	52	—
	江陵大	65	4
	檀國大	52	4
	全南大	52	4
地域社會開發學科	大邱大	104	9
	嶺南大	52	4
	中央大	39	3
計	9 個大	520	37

〈表-3〉造景學科一覽

學 科	大 學	募 集 定 員	教 授 數
造景學科	서울大	39	5
	嶺南大	52	5
	清州市立大	52	3
	서울市立大	39	5
	慶熙大	52	3
	成均館大	78	3
	全南大	52	2
	慶北大	52	2
	曉星女大	52	3
	東國大	52	3
	木浦大	52	3
計	11 個大	572	37

〈表-4〉 環境大學院一覽

大 學	全 體 定 員	教 授 數
서 울 大 環 境 大 學 院	185	12
弘 益 大 環 境 大 學 院	70	1
漢 陽 大 環 境 科 學 大 學 院	170	—
嶺 南 大 環 境 大 學 院	200	—
計	625	

— 不明 또는 學部教授와 兼任

〈表-5〉 環境工學科一覽

學 科	大 學	募 集 定 員	教 授 數
環 境 工 學 科	建 國 大 大	52	2
	東 亞 大 大	65	5
	亞 洲 大 大	104	5
	仁 荷 大 大	78	2
	全 北 大 大	52	3
	朝 鮮 大 大	39	4
	서 울 市 立 大 大	52	4
	釜 山 水 大 大	52	4
環 境 保 護 學 科	慶 熙 大 大	65	3
環 境 學 科	江 原 大 大	52	3
計	10 個 大 大	611	35

學에 造景學科가 新設되었으며(〈表-3〉 참조), 環境大學院만 하더라도 1973年 서울大學校에 처음 開設된 以後 嶺南大學校, 弘益大學校, 漢陽大學校가 各己 開設한 바 있다. 그리고 名稱은 다르지만 韓南大學에 專門大學院으로서 地域開發大學院이 開設된 바 있다(〈表-4〉 참조).

또한 最近 몇년 동안에 環境問題에 대한 認識向上과 더불어 全國의 10個 大學에 環境工學科가 新設 됨으로써(〈表-5〉 참조) 이른바 人工環境(built environment)에 대한 計劃과 工學의 研究에 대한 大學의 發展은 括目할 만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學科의 新設과 더불어 大學 募集定員의 增加는 一般的인 大學人口 上昇率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一抹의 두려움마저 생길 정도의 量的 擴散을 보였다.

이러한 計劃分野教育의 急激한 成長속에서 教科課程을 비롯하여 計劃家의 市場과 資質에 이르기까지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計劃關係 教育의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 學界는 물론 實務 研究分野에서 자리를 같이하여 解決策을 模索해 불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⁸⁾ 그러나 11年前에 擧論되었던 苦惱의 상당 部門이 아직도 常存하고 있으며 새

(8) ① 大韓國土計劃學會, 「都市化時代의 計劃專門家養成과 活用に 관한 세미나發表論文」, 1972년 3月 25日. 世宗호텔에서 1972年 3月 25日 盧隆熙, 朴炳柱, 韓根培, 朱鍾元, 崔相哲 諸教授

로운 方向을 기다리고 있다. 오히려 그당시보다 問題는 深化된 것 같으며 普遍화된 底邊에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計劃家의 生産體制에 대한 市場의 깊이와 幅은 多變되어 있는지 과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計劃의 教育이 되고 있는지, 計劃家로서 지켜야 할 倫理觀으로 어느정도 武裝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첫째 量産되는 計劃家들이 活動해야 할 市場은 아직 制限的이다. 가장 많이 需要되어야 할 政府部門에는 아직도 計劃職을 體系的으로 받아들일 職列이나 職群이 없다. 國土開發研究院을 비롯한 研究機關도 극히 制限되어 있다. 每年 國家가 施行하는 資格試驗에 合格한 技士 또는 技術士의 數도 制限되어 있으며 試驗에 合格한다 해도 이들을 받아들일 民間用 役機關이 制限되어 있으며 用役機關 自體가 아직도 體系的이고 持續的인 職場으로서 計劃家를 수용할 수 있는 態勢가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開發主體로서 많은 建設會社들이 있지만 計劃家를 專任으로 고용할 만큼 成熟하지 못한 것도 事實이다. 計劃家라는 이름으로 一旦 輩出된 人材들이 變化하는 社會的 關心과 새로운 技法을 再教育받을 機會도 많지 않다. 計劃家가 해야 할 새로운 領域이 社會的으로 要求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空白을 메꿀수 있는 政府의 次元이나 學會 내지 協會와 같은 自體教育도 制度化되어 있지 않다. 計劃과 관련된 知識體系와 技法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現時點에서 그 많은 計劃家들 중에서 特定問題를 다룰만한 計劃家를 찾아내기란 대단히 힘들다. 이른바 豐饒속의 貧困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는 즉 量産體制에 뒤따르는 專門化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專門領域을 尊重해주는 風土도 되어 있지 못한 韓國的 與件속에서 計劃家라는 職業을 어떻게 定着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計劃家를 위한 教育 自體에 대한 問題이다. 지난 10年間 우리나라 計劃專門教育은 括目할 만한 發展과 變化를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發展의 段階와 問題意識을 바탕에 깔고 흔히 말하는 土着化가 되었는지는 많은 의문이 있다. 1960年代末까지 우리나라 都市計劃教育의 準據理論은 日本的인 것이 大宗을 이루었다. 日語世代로 代表되는 學者와 극히 制限된 文獻을 통한 理論과 技法의 傳受였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理論과 實務의 斷絶이 시작되었다. 美國的인 理論과 技法의 來襲이었다. 특히 1960年代末부터 나타난 激動期의 計劃理論과 新理想主義로 불리워지는⁽⁹⁾ 計量的 技法의 導入이 그것이다. 當時 美國의 計劃理論과 技法은 興舊되어 있었고 美國이 當面하였던 黑人暴動, 越南戰, 反體制運動의 渦中에서 成熟한 計劃體系였다. 이즈음 渡美한 少壯學

들이 發表하였음.

② 拙稿, “우리나라의 造景學 教科課程의 分析과 問題點,” 「韓國造景學會誌」, 第3卷 第2號 (1975年 12月), pp. 59-67.

③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地域(社會)開發學科의 教科課程 改善을 위한 세미나 主題發表論文集」, 1981年 7月 3日.

(9) Robert Boguslaw, *The New Utopians*, Prentice-Hall, 1965.

者들은 美國의 激動時代에 風靡한 理論體系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들 理論들을 스스로 체로 걸러 받아들일 만한 韓國的 現實과 實務에 대한 經驗도 없는 채 美國社會을 통해 본 都市計劃教育을 받고 돌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理論과 技法들은 우리나라 計劃教育에 그대로 投入되었으며 이것은 結果적으로 理論과 現實을 分離시키는 結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¹⁰⁾ 都市問題에 該博한 都市評論家(urbanist)⁽¹¹⁾의 專門家로부터 計量的 方法論의 優雅性과 好奇心에 魅了된 數値의 魔術師(whiz kid), 西歐의 物的 文明體系를 韓國的 現實에 移植시킬려는 摩天樓의 幻想論者(visionary), 思辯的 計劃家(philosopher planner), 몇가지 問題接近의 보따리를 손에 들고 온 패키지 計劃家(package planner)에 이르기까지 좋게 말하여 計劃領域의 多元化가 이루어졌다면, 否定的으로 말하여 統合의 바탕이 없는 百家爭鳴의 時代에 들어 갔으며 既存의 否定위에 새로운 것의 誕生이 이루어지지 못한 過渡的 混亂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바로 이러한 教育의 風土는 計劃家들의 「프로페셔널리즘」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計劃家들을 彷徨하게 한 遠因이 되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近代의 計劃教育이 발을 붙인 지도 어언 20년이 가까와지고 있다. 教科課程으로부터 大學別, 地方別 特性의 再發見과 美國 이외의 計劃教育에 대하여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나라 都市 및 地域計劃의 原初의 形態는 歐羅巴 大陸의, 특히 英國, 獨逸, 프랑스의 인 것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1934年 朝鮮市街地計劃令이 1909年의 英國 都市計劃法(Town Planning Act)으로부터, 土地區劃整理手法이 獨逸의 區劃整理(umlegung)로부터, 新都市建設과 大都市人口分散을 위한 「그린벨트」, 工業再配置, 特定地域의 指定 등이 英國으로부터, 土地政策이나 成長據點開發戰略(growth pole strategy)은 프랑스로부터 由來하고 있다. 사실 이상과 같은 計劃의 概念이나 開發戰略은 美國的 計劃風土에서나 教育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 들이며, 國土의 與件이나 歷史的 背景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 計劃哲學으로부터 計劃手法에 있어서 脫美國化는 아닐지라도 美國 以外의 다른 나라에 關心을 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고 우리나라 計劃教育體制에 대한 再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西歐諸國의 都市計劃教育은 大學이 자리잡고 있는 地方과의 密接한 交流關係를 지니고 있으며 大學院 中心으로 少數 精銳主義에 基盤을 두고 있으며 大學別 特殊성과 專門性이 強調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地方의 特性을 살리면서 大學間의 機能分化和 大學院教育의 重要性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計劃家로서의 使命感과 職業意識에 대한 教育이 보다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平生의 職業으로 삼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무엇인가 一生을 바쳐 貢獻할 만한 價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計劃家는 終局的으로 個人의 健全한 判斷에 바탕을 두어야 할

(10) 拙稿, “70年代 都市研究의 回顧와 反省,” 前掲書, pp. 79~80.

(11) Herbert Gans, “Planning in America,” *People and Plans*, Basic Books, 1968, pp. 57-77.

때가 많으며 計劃家 스스로의 良心과 의로운 鬭爭을 해야 할 때가 많다.

使命感과 職業意識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專門家로의 技術과 能力이 具備되어야 한다. 一定時點에 있어서의 能力뿐만 아니라 專門領域에 대한 새로운 技術과 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專門職業人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計劃家の 경우 새로운 것을 吸收하고 自己 것으로 만들 수 있는 創造性이 있어야 한다. 또하나 計劃家라는 職業人으로서의 資質은 예민한 感受性을 培養해야 할 것이다. 計劃은 特定 時代와 特定集團의 未來意志에 대한 全體의 同意를 구하는 過程이고 節次이다. 計劃家가 獨斷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며 對話와 說得을 통한 合意를 形成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計劃家の 資質은 더욱 要求될 것으로 展望된다. 計劃教育속에 이러한 教育的 必要性을 어떻게 導入하고 教育過程 속에서 消化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論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Ⅲ. 計劃家の 現場

計劃家라는 프로페셔널리즘의 未成熟과 計劃教育體系의 跛行性에도 불구하고 計劃家가 參與하고 있는 現場은 대단히 바쁘다. 1983年 大韓國土計劃學會에 登錄된 會員만 하더라도 542名으로 나타나 있으며 지난 10餘年 동안에 3倍 以上の 數의 增加를 보였다. 다음 <表-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72年 3月 大韓國土計劃學會 會員은 166名이었으나 1983年 1月

<表-6> 대한민국토계획학회 회원전공(최종학력을 중심으로 함)분류

입회년도	전공	도시 계획	건축	토목	조경	농학	도시 설계	환경	교통	행정	경제	지리	사회	지역 개발	법률	정치	부동 산	기타	계
'83. 1. 1~3. 28	16	4	3	1		1	1		1		2	1							30
'82	31	4	3	4		1	2	1	2	2	4		4				2	2	62
'81	25	9	3			2	1	1	1	3	2	3	1			1	2		54
'80	18	8	3				1			2	1	1		1			2	3	40
'79	12	3	1	1			1	1	2			3							25
'78	20	8	4	5				1		4	2				1				45
'77	22	5	6	5				1		3	1	1		1			1	2	48
'76	29	11	5	6				3		7	4	1	1		3				71
'75	24	1	2	1				1	1	1	3	2							37
'74	6	2	1						1	4		1		1		1		2	19
'73	11		4			1				2	1	2			1	1		1	24
'60. 1. 1~ 72. 12. 31	(14)	(27)	(84)			1			(4)	(16)	(8)	(2)	(5)	(5)					5(166)
	6	14	37						7	5	6	1	4	2					87
계	220	69	72	23	3	5	11	6	36	21	26	4	11	7	3	7	18		542

(註) 1960~1972年間 會員數와 專攻別 差異는 그간 會員名簿의 再整理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는 1972年 數值로서 1972年 3月 現在 當時 名簿에 의한 것임.

參考: 拙稿, 「現代가 要求하는 計劃家와 計劃家の 資質」, 大韓國土計劃學會, 1972. pp. 132-133.

〈表-7〉大韓國土計劃學會 會員의 勤務處

입회년도	분야 官 界	學 界		政府公社	民間企業 및 用役	기 타	합 계
		大 學	研 究 所				
'83. 1. 1~3. 28	4	7	4		14	1	30
'82	17	28	4	6	6	1	62
'81	1	29	8		15	1	54
'80	5	13	15		7		40
'79	1	16	4		4		25
'78	5	13	5	3	19		45
'77	8	18	2	1	19		48
'76	19	35	8		7	2	71
'75	3	15	9	2	7	1	37
'74	3	8	2	2	4		19
'73	7	11	4		2		24
'60. 1. 1~72. 12. 31	53 (42)	35 (31)	3	16 (1)	61 (9)	1 (1)	166 (87)
계	115	224	68	15	113	7	542

(註) 1960~1972年間 會員數와 勤務處의 差異는 調査時點의 差異에 의한 것으로 1972年 數値는 1972年 3月 現在이며 ()는 1983年 1月 現在임.

現在 542名으로 늘어났다. 量的 擴大뿐만 아니라 質的 變化를 동시에 수반하였는 바 最終 學歷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1960年代만 하더라도 土木을 專攻한 사람이 84名으로 絶對 多數를 차지하고, 建築이 다음으로 27名, 經濟學이 16名順으로 되어 있었으며 都市計劃이나 地域計劃을 專攻한 사람은 겨우 19名에 불과한 實情이었다. 그러나 1983年 現在 542名의 會員 중에서 都市計劃 및 地域開發을 專攻한 會員이 231名으로 全體의 43%에 가까와지고 있으며 土木이나 建築은 상대적인 少數會員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造景이라든가 環境工學이라든가 하는 새로운 專攻의 參與가 있었고 社會科學專攻의 會員이 많이 入會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一連의 變化 그 自體가 좋다 바쁘다는 判斷을 떠나서 計劃家의 性格이 變貌하였음은 틀림없고 物理的計劃家(physical planner)로부터 政策計劃家(policy planner)로의 性格이 강하게 띄게 된 것 같다. 과연 이러한 計劃家의 性格 變化가 韓國의 計劃風土 속에서 어떠한 意味를 가지며 現實的인 照明이 되었느냐를 再吟味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計劃家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60年代를 통하여 計劃家들의 活動舞臺는 官界 그 自體였다. 위의 〈表-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72年 現在 官界가 53名이고 學界가 35名으로 大宗을 이루었으며 民間企業 및 用役機關이 61名이었다. 그러나 1983年 現在 構成比가 크게 달라졌는 바 大學에 在職하고 있는 會員이 224名으로 全體의 41%를 넘어서고 있으며 다음으로 官界와 民間企業 및 用役機關이 各各 115名과 113名으로 多數를 占한다. 또 하나 두드러진 것은 大學附設 및 國策研究

機關에勤務하는會員이 68名으로 급성장하였으며 특히 國土開發研究院의 發足이 이러한 趨勢을 加速시켰다고 본다. 大學에 있는 理論的 計劃家의 급격한 增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지난 10年동안의 計劃教育의 幾何級數的 膨脹에 緣由하고 있으며 民間企業 내지 用役 機關에 從事하는 實踐的 計劃家의 상대적 停滯現象과 무척 對照的이다. 大學에서 教育을 專業으로 하면서 計劃實務에 여러가지 形態로 參與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實務的 計劃家의 役割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以外에도 都市 및 地域計劃技術士의 輩出이 극히 制限的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原因이 된다고 본다. 都市 및 地域計劃技術士들의 數는 1983年 現在 42名에 불과하며 비록 資格을 所持하고 있다 하더라도 學界에 많이 몸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 실제 實務에 從事하고 있는 數는 50%에 未達하고 있다.

지난 1970年代를 거쳐 1980年代 初盤에 이르는 現在까지 計劃家들이 活動해야 할 現場은 무척 바뀌었다. 都市計劃對象地域의 급격한 增大와 필요성의 上昇에 따라, 都市綜合開發計劃, 都市基本計劃, 都市再整備計劃 등의 樹立으로부터 團地設計, 土地區劃整理事業과 關聯된 計劃設計, 都市再開發計劃設計, 公團計劃에 이르기까지 多元的이고 重複的인 일들이 달겨졌으며 新行政首都計劃, 新都市建設計劃, 工業團地計劃設計 등 國家的인 開發需要에 따른 計劃家들의 要求도 동시에 증가하였다. 地域計劃과 관련하여 道建設計劃, 道綜合開發計劃, 郡建設計劃, 地方定住生活圈計劃 등과 같은 일들로부터 第1次,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樹立과 관련한 研究과 計劃作業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政府의 意慾的 開發事業과 人口 및 產業再配置에 대한 計劃들이 成案되었으며 大都市圈政策과 開發計劃에 대한 計劃家들의 參與도 활발 하였다. 이상과 같은 計劃樹立과 研究事業에 대한 計劃家들의 參與도 활발하였고 우리나라 計劃體制發展에 커다란 寄與를 했음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바뀐 現場속에서 計劃家들은 무엇을 남겼고 어디로 향하여 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自省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많은 計劃書와 報告書와 研究物의 現住所는 어디에 있으며 앞날을 위해 過去의 業績을 얼마나 活用하고 評價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없지 않다. 한나라의 計劃體系를 定立하고 計劃家を 키우기 위한 投資的 意味는 대단히 컸다. 그러나 오늘 이 時點에서 누구의 責任을 묻기 전에 大學人은 大學人으로서, 實踐的 計劃家是 計劃家로서의 自覺과 計劃家들의 集團으로서 學會, 協會 등의 再評價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計劃風土 全般에 걸친 再整備가 要請된다고 본다.

첫째 大學을 중심으로 한 計劃教育의 問題點과 發展方向에 대해서는 앞서 言及을 했다. 그러나 計劃의 現場과 관련하여 大學과 大學附設研究機關에 있는 大學人으로서의 理論的 計劃家(planner as academic)의 現實參與의 限界과 役割에 대한 默示的이나 線을 그어야 할 때가 왔다. 이미 大學이 養成한 實踐的 計劃家들이 一線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大學에서 都市計劃을 공부하고 技術士資格試驗이 要求하는 7年이란 時間이 지나 技術士가 되기 시작하였다. 大學人의 社會的 役割은 過去에 비하여 間接的이고 理論的인 것으로 돌아가야

할 段階가 온 것 같다. 나아가 計劃敎育의 量的 擴大에 따른 市場에 대한 보다 現實的인 評價가 要望되고 있다. 量的 擴大가 質的 分化和 專門化를 수반하지 못할 때 綜合計劃家 (generalist planner)의 過剩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므로 計劃의 專門領域別 分화를 위한 大學別, 地域別 按配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 大學속에서도 敎科課程의 運營에서 專攻制의 導入도 檢討의 對象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大學에서의 計劃敎育이 보다 現實的인 視覺에서 땅에다 발을 붙여야 할 것 같다. 西歐的인 都市計劃 概念과 制度의 導入過程에서 차츰 빠지기 쉬운 形式論理나 理想論은 韓國的 現實을 통하여 濾過되고 우리 것으로 消化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敎育過程에 投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實務的 計劃家들이 일할 수 있는 風土의 改善이다. 都市의 規模가 擴大되고 都市問題가 深化됨에 따라 都市管理 역시 專門性和 技術性を 필요로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時間이 지남에 따라 더욱 加重될 가능성이 있으며 넓은 意味에서 知識産業(knowledge industry)이라고 불리워 지는 技術用役 및 研究用役의 役割은 날로 增加하고 있다. 政府나 民間部門에서의 外部用役의 필요성은 內部的 專門家로서의 能力限界때문에 外部人에게 技術者的 補助者(technician-aid-to administrator)라든가 政策決定을 위한 代案을 提示하기 위한 目的設定者(goal formulator)로서 要求되는 일이 많다.⁽¹²⁾ 그러나 이러한 外部用役의 필요성과 現實的인 業務量의 增大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 들이는 研究機關 내지 用役機關들의 現實은 여러가지 問題를 안고 있다. 用役業體의 零細性, 浮沈性, 不安定性은 물론 그곳에 몸담고 있는 計劃家들의 姿勢 또한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用役에 대한 發注量이 一定하지 않으며 강한 隨時性を 띄고 있어 定期給을 支拂하는 專任職員을 많이 둘 수 없으며 일이 생겼을 때 必要 人力을 一時的으로 動員하였다가 일이 끝나면 解體하는 時限的 組織의 特性을 띄기 쉽다. 따라서 業務라든가 特定個人의 力量에 따라 變動이 심한 不安定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長期的인 研究業績이나 人力의 養成보다는 短期的인 企業性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研究 및 用役風土의 改善을 위한 國家的 支援과 用役費의 支出에 대한 認識水準의 改革이 무엇보다 急先務라 보여진다. 計劃分野도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研究用役機關의 專門化와 經驗과 技術의 蓄積을 圖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計劃家들에 대한 職務敎育과 職業人으로서의 倫理感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計劃家란 根本적으로 個人的인 서비스를 提供하는 職能集團이다. 지나친 政府主導型 資格制나 規制보다 職能集團으로서의 矜持와 自己規制의인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純粹學問的인 研究보다는 實踐的이고 處方的인 서비스를 提供하면서 集團으로서 權威와 對外的인 認識을 向上시켜 나가는 노력이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¹³⁾ 앞서 말한 바와 같

(12) 拙稿, “都市行政과 技術用役,” 「都市問題」, 第9卷 第3號(1974年 3月) pp. 35-36.

(13) 拙稿, “職業으로서의 計劃家: 그 意義와 實質에 관하여,” 「空間計劃」, Vol. 1(1971) pp. 18-22.

이 計劃分野의 唯一한 學會로서 大韓國土計劃學會는 學會와 職能團體의 性格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初期의 職能集團의 性格으로부터 學會의 性格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다. 學會와 計劃家들의 職能集團으로서의 協會를 分離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職能團體로서의 倫理綱領(professional ethic)의 制定, 自己規制體制와 自體教育體制를 確立해 나가야 할 것이다. 學會는 學會 나름대로 專門性を 살려나가면서 綜合科學으로서의 計劃理論과 方法을 研究·發展시킬 수 있는 代案的 改善方案이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計劃의 需要에 敏感한 受容態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都市도 都市基本計劃이나 再整備計劃, 土地區劃整理事業의 範圍를 벗어나 여러가지 새로운 問題와 計劃의 接近을 要求하고 있다. 巨視的 計劃으로서 都市計劃과 微視的 規制로서 建築 사이에 中間的 計劃으로서의 都市設計 및 地區詳細計劃制度의 定着⁽¹⁴⁾, 都心部 및 住宅改良再開發計劃과 手法에 대한 研究, 環境影響評價와 都市開發 및 計劃과의 關聯性, 쇼핑센터를 비롯한 民間主導型 시빅센터(civic center)計劃과 設計, 都市再整備手法과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元方法 등에 대한 研究가 시급히 要請되고 있다. 우리나라 都市計劃理論과 實務에 있어서도 近代的인 制度를 받아들인 지 半世紀가 지났다. 우리가 하고 있는 都市計劃 接近에 대한 原初的 形態를 再吟味하고 다시 되돌아가 先進諸國의 制度를 再照明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計劃哲學으로부터 手法에 이르기까지 韓國的인 것의 再發見과 軌道修正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14) 權泰坡·崔相哲, “우리나라 都市開發規制의 問題와 地區詳細計劃制度導入의 必要性,”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計劃研究所 Monograph」 No. 1, 1982.